



새로운 아틀란티스

1626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The New Atlantis*)가 출간되었다. ‘아틀란티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자신의 저작에서 언급한, 대서양에 있는 전설 속의 섬이다. 플라톤은 그의 저작에서 이 섬의 크기를 소아시아와 리비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설 속 군주들이 강력한 해군력으로 지중해의 많은 땅을 정복하여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결국 대서양 속으로 가라앉은 곳으로 아틀란티스를 묘사했다.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 부유한 섬, 지구상 어디엔가 아틀란티스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에 가득한 보물이나, 숨겨져 있을 특별한 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모험 이야기가 심심찮게 영화나 소설로 제작되기도 했다.

베이컨은 대서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아틀란티스를 태평양의 한 섬으로 가정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담았다. 이 소설에는 중국과 일본을 향해 페루에서 출항한 51명이 등장한다.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던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적처럼 ‘벤살렘’(Bensalem)이라 불리는 섬나라에 도착했다.

벤살렘에는 원주민 외에도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다. 벤살렘 섬은 둘레가 5,600마일에 이르고, 농작물들을 키우기에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벤살렘 사람들은 먹고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유했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건네는 금전적 보답도 거절할 정도로 청렴했다. 또한 그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서, 술집에 가거나 매춘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벤살렘 왕국에는 ‘솔로몬 학술원’이라는 연구 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사물의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여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켰다. 게다가 벤살렘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을 파서 엄청난 크기의 동굴을 만들고 운영했다. 그들은 이 동굴에서 사물을 응고하거나 경화, 냉동시키며 다양하게 보존했다. 또한 동굴에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새로운 금속과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들로 병을 치유하며 생명

을 연장하기도 했다.

벤살렘에는 작은 우물도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벤살렘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천국의 물’이라는 물도 만들어냈다. 그들은 한 번 먹고 나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기와 빵, 음료수도 개발했다. 또한 벤살렘은 토양이 비옥하고, 바다 어종도 풍부했기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복지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벤살렘 역사의 성군 솔라모나 왕은 외국과의 교류나 도움 없이도 벤살렘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베이컨이 그린 벤살렘은 그야말로 그가 꿈꿨던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한 이상적인 국가다. 사람들은 뇌물을 거절할 정도로 정직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잘 보전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지킨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람을 존중한다. 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베이컨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람마다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형태와 구성 요소는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기대하고 꿈꾸는 멋진 세상이 있을 것이다.

2024년 한 국제구호단체에서 국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49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항목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1위를 차지한 답은 응답자 중 26.6%가 채택한 ‘공정한 기회를 가진 사회’였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 “아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굿네이버스, <https://www.goodneighbors.kr/story/storycast/2966/view.gr>(2025년 9월 15일 검색).

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것은 응답자의 21.2%가 고른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된 사회’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18.1%로 3위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세대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저마다 다르다. 또한 다음세대가 자라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그들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년, 한 아동복지 전문 NGO가 국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서 발표했다. 이 단체는 수면, 학습, 미디어 시청, 그리고 운동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5.3점을 기록했다. 2023년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아동행복지수는 50점도 넘지 못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곳이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평균 50점이 안 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멋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멋진 세상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당한 만큼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

★★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록우산, https://www.childfund.or.kr/STH2/upload/file/contents-TheSis/2024/12/24/UclIMQYEMQM_20241224090639.pdf(2025년 9월 15일 검색).

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주제를 통해 다음세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바꿀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삼상 17:55-58, 18:6-11)

되갚지 말고 인내하라!(삼상 24:1-22)

욕심내지 말고 사람들을 돌아보라!(삼상 30:1-25)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